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관광지화된 도량

사찰은 불자리만을 제공하는 관광지가 아니라 절마다 아름답게 번신하는 산과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은 경원이 있는 관광객들이라면 종교에 관계없이 한 곳 이상의 사찰은 가봤을 것이다. 이렇게 초종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참배하고 불법의 그윽한 향연의 체취를 조금이라도 맡고 간다면 불교의 포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참배를 마치고 가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사찰일수록 청정도량의 본래 모습이 훼손되고 있다. 물론 국보급 문화재와 부처님 법상 등을 현장에서 가깝게 느끼기 위해 사찰을 방문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중생제도를 위해 스님들이 정진하는 수행처인 경내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거나 고성을 지르면서 음식을 먹는 등 일반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경경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이곳이 수행을 위한 도량인지 관광객을 위한 사찰인지 구별이 가질 않는다.

사찰 주변의 환경도 문제다. 국립공원내에 있는 사찰을 비롯해 잘 알려진 도량의 경내를 조금 벗어나면 각종 음식점들과 민숙주점들이 즐비하다. 사찰의 감지도 소홀한 편이다. 사찰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설명한 안내관은 곳곳에 깨끗하게 정돈돼 있지만, 정작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찰내 방목객들의 준수사항 등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처음 오는 사람이라도 경내에 들어서기 전에 한번만 보면 도량의 경건함과 예절을 알 수 있는 안내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찰에서도 전담 안내자를 뒤 관광객들의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오는 방문객들을 사찰 보호란 이름으로 막을 수는 없다. 사찰과 종단이 함께 나서 도량의 참모습이 회복되도록 주변 환경 정리와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때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nia.com)

---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디피아: www.buddhania.com

## “사회봉사 강화해야” 54%

현대불교신문사·한국불교연구원 '재가불자 실행의식' 설문  
**기복 탈피 뚜렷...교리공부 아직 과제**

“불자들의 실행에서 사회봉사와 교리공부를 강화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과 본지가 공동으로 실시한 ‘재가불자 실행의식’ 설문조사에서 불자들은 재가불자의 실행에서 강화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교리공부(63.2%)와 사회봉사(54.3%)라고 꼽았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회봉사(보시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는 불자는 15.8%에 그쳤다.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싶으나 마땅한 프로그램을 찾지 못했거나, 사찰이나 불교단체의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는 재물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기술을 나누는 보시바라밀의 실천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18.5%에 머물며, ‘어려다 실천한다’ 또는 ‘이론으로는 하는데 실천이 어렵다’가 각각 44.5%, 27.8%에 이르는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생과 운회를 믿는다’고 응답한 불자가 55.9%에 머무는 등 교리의 이해도가 낮다는 점에서 불교의 바른 이해를 위한 교리공부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야심경의 핵심을 잘 모른다거나 반

을 이해할 뿐이라는 응답도 80.1%에 이르렀다. 설문 응답자들이 비교적 체계적인 교리학습을 받았으면서도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모르고 있거나 이해도가 낮았음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 매우 긍정적인 면도 나타났다. 기복상의 탈피, 정기신행증의 확산은 교리 이해의 부족, 가르침의 실천이 미흡하다는 결과를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줬다.

정병호 한국불교연구원장(동국대 교수)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지성불교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으나, 이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하다”고 평가하고 “전후세대를 위한 현대적 번역경전의 보급, 구태의연한 법회의식의 탈피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관련 사설, 분석, 평가 2, 24, 25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연등축제가 19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와 동대문운동장, 종로거리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제등행진에는 코끼리를 탄 아기부처님 등 각종 장엄을 400여개를 앞세우고 3만여명의 불자들이 거리를 오색등불의 물결로 수놓으며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했다. (관련 기사 화보 2, 23면) 고양배 기자

### “부처님 가르침은 화합·공존의 정신”

김대통령 봉축메시지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김대통령이 봉축메시지를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22일자로 발표한 봉축메시지를 통해 “부처님은 하찮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화합과 공존의 정신을 일깨워주셨다”며 “호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려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희망의 새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메시지 오지 2면) 정성운 기자

로마교황청 봉축 메시지

로마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프란시스코 아킨레 추기경도 14일 축하메시지를 통해 “불자여러분에게 하느님의 풍성한 복이 내리기를 빌며, 다시한번 우정과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 문화부 증무실 3개과서 2개과로

정부의 종교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증무실이 1개과가 폐지되는 선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무실은 2부무관, 증무 1·2과로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중앙행정기관의 1천5백여개 실(室) 국(局) 관(官) 과(課) 조직 가운데 1백20여개 조직을 감축하는 내용의 제2차 정부조직개편 최종안을 김중립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불교계와 각 종교계는 지난 3월부터 증무실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요원에 전달한 바 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증정 해암스님이 11일 열린 증정추대식에서 대중들에게 법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조계종 해암종정 추대식

11일 조계사 3천명 동참...범어·교시 내려

조계종 제10대 증정 해암성관(性嚴 性嚴) 스님 추대식이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3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증정 추대식은 오후2시 정각 33번의 범종이 울리는 가운데 원로회의 의장 해암스님과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안내로 증정 해암스님이 대웅전에 입장하면서 시작됐다. 삼귀의와 반야심경·봉독, 총무원장 인사말, 원로의장 추대사, 대통령 메시지 낭독, 범종과 범장 봉정, 증정스님의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해암대종사는 이날 법어를 통해 “삼리만상이 부처 아님이 없고, 모든 일이 도 아님이 없으니라. 깊은 산골짜기 흐르는 물은 법을 설하고, 산봉우리 석불은 법당이 솟네”라고 설교했다. (중정 인터넷·범어 전문 3면)

증정 해암스님은 추대식에 앞서, “지계청정(持戒清淨) 종풍선양(宗風宣揚) 전법도생(傳法度生)”이라는 교시를 내렸다.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과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인사말과 추대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위대한 수행자의 구도적 삶으로 종단의 청정한 수행가풍을 회복하라”고 말했다.

김대종대종사는 이날 신낙근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불교는 이제 안정속에 원용화합을 이루고,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증정 추대식에는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스님들과 3원장, 종회의장, 호계원장, 23개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각 종단 대표, 승려구통, 국대총장 등 신도대표, 신낙근 문화관광부 장관, 서석재 박상규 함종환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구산신문 참선 기행**

5월: 실상산문(실상사)·쌍계사·칠불암

출발: 5월 29일(토) 밤11시·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4만5천원(조식 증식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신문 관련자료 부디피아(www.buddhania.com)에서 보낼요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대한불교교과인회

**근세 100년 고승 기념메달**

20세기를 빛낸 큰스님들!  
 기념메달로 우리곁에.....

**“근세 100년 고승 기념메달” 한국조폐공사가 만들었습니다.**

고객에 대한 무한책임!  
 한국조폐공사는  
 21세기 세계조폐산업을 선도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규격  
 -소 재 : 황동(금도금)  
 -지름 : 80mm  
 -케이스 : 고급 우단

화폐를 디자인하는 전문 디자이너와 조각가가 디자인하고 조각하여 주화제조 방식과 동일한 압인(壓印)방식으로 제조한 고품위메달입니다. 문양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수집가치가 높습니다.

제조처 **한국조폐공사**  
 Korea Minting and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E-mail: kmsp@kmsp.com  
 http://www.kmsp.com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TEL. 02)722-4162